



IV
DIABLO
LORD OF HATRED

악몽의 날개
위에서

네이렐

JONATHAN MABERRY

스토리

JONATHAN MABERRY

일러스트

LYNETTE WONG

편집

MEGAN WALKER

디자인

SOPHIE ERB

아트 디렉션

ALEX CRESWICK

세계관 자문

IAN LANDA-BEAVERS

창작 자문

MATT BURNS, CASSIEL CHADWICK,
CHLOE FRABONI, ZAVEN HAROUTUNIAN,
DAVID LOMELI

프로덕션

HANNAH MATTISON, BRIANNE MESSINA,
TAKAYUKI SHIMBO, JT TORREA, TRACY WANG

번역

BLIZZARD LOCALIZATION



© 2026 Blizzard Entertainment, Inc. Blizzard, Blizzard Entertainment 로고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출간: Blizzard Entertainment.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이름, 인물, 장소, 사건은 작가 또는 아티스트의 상상 의 산물이거나 허구적으로 지어낸 것이며, 생사를 불문한 실존 인물, 사업체, 사건 또는 지역과의 유사성은 순전한 우연입니다.

Blizzard Entertainment는 작가 또는 타사 웹사이트 또는 콘텐츠를 관리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나, 신탁 여왕의 말을 들어라. 현재와 과거, 미래를 아는 것이 내 몫이니.

꿈은 창문을 닫고 통로를 잠가도 진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어둠의 세계, 잠든 정신으로 통하는 문이다.

꿈에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희망을 품고, 계락을 꾸미고, 믿음을 얻으며... 모든 난국을 해결하고 자신에 대한 비밀을 발견했다고 생각하며 잠에서 깨어난다.

오, 우주가 이런 신념에 얼마나 기뻐했던가. 희망의 꿈을 꾸는 자의 선율이 현실에 그 의지를 강요할 수 있더라도 한 것처럼.

허나 진실은 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거미줄 가득한 악몽의 통로 속에서 진실은 찾아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래, 참으로 엄청난 대가가...





네이렐

그날 네이렐은 먼 길을 걷고 또 꿈속에서 더 먼 곳까지 걸었다. 그녀는 평소 희망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지만, 의혹이 조금씩 그 옷의 실오라기를 당기기 시작했다. 깨어 있을 때와 잠들어 있을 때의 여정 모두 그녀에게 평온을 주지 못했다. 그 어느 길도 햇살이 반짝이고 그림자는 그저 빛이 부재한 곳일 뿐인 푸르른 들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녀는 진실로부터, 사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느꼈다.

메피스토가 깨어나고 있었다. 그것만은 분명했다. 매일, 매 순간 그의 힘은 커졌고, 그 힘이 드리울수록 네이렐은 흐릿해지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사명을 잃었다.

희망을 잃었다.

여정이 시작된 이후로 네이렐은 가장 헌신적으로 진실을 찾았던 학자들만 알 수 있었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더 많은 걸 배우고, 더 많은 걸 알아야 했다. 그런 지식은 전투에서 그녀를 돕기도 했지만, 요즘은 그걸 굶주린 벌레처럼 머릿속에서 꿈틀거렸다.

조각난 봉우리의 좁은 길 위에서 밤을 보내려고 야영지를 만들었을 때, 그녀는 매서운 바람을 막으려고 모닥불을 높이 피우고 가까이 앉아, 털가죽으로 온몸을 감쌌다. 무척이나 추운 날이었고, 아무리 옷을 덧입어도 차가운 공기는 조끼와 속옷 사이의 틈으로 파고들어 피부를 물어뜯었다. 네이렐 주위 사방에서 바람이 어둠의 목소리로 울부짖고, 산 자들의 열기를 쫓는 얼어붙은 유령들의 형상을 만들어 냈다.

모든 밤이 그와 같았다.

모든 야영지, 모든 잠, 모든 자정과 모든 여명은 살아갈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배제된 삶의 메아리 같았다. 절망이 모닥불을 바라보며 앉은 그녀의 목을 졸랐다. 이토록 많은 길을 지나면 그 끝에는 어떤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까? 수도 없이 싸우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대가가 무엇일까?

“그가 이미 이긴 건 아닐까?” 그녀는 침낭에서 부들부들 떨며 밤을 향해 물었다. 추위는 끊임없이 희생자인 그녀를 공격해 왔다. 온기가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자신감과 낙관 역시 얼어붙어 쪼개졌고, 한 조각씩 치명적이고 무자비한 밤을 향해 떨어져 나갔다. “여기가 내 연옥일까? 선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믿지만, 결국은 내 생을 불태워 버리고 있을 뿐인 건 아닐까?”

“난 전사가 아니에요.”

그녀는 대꾸했다.

“학자라고요.”

모닥불 너머 쪼개진 바위 위에 까마귀가 한 마리 앉아 있었다. 그 고대의 눈에는 지식이 가득해 보였지만, 밤의 새는 그녀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네이렐은 두 눈을 꼭 감았다. 어머니가 붙여 줬던 이름처럼, 그녀가 까치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새들끼리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 까마귀와 대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까마귀가 네이렐에게 도움이 될 비밀을 속삭여 줄까? 이 기나긴 길에서 파멸이 언제나 그녀의 한 걸음 뒤에 견고 있음을 확인해 줄까? 이 고된 여정의 끝에는 패배와 죽음, 휴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 줄까?

가장 음울한 생각에 잠겨, 네이렐은 악몽이 기다리는 깊고 어두운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밤은 검게 물들었다. 추위는 의도적이고 맹렬하게 강해졌지만, 네이렐은 어느새 주황색 빛을 발하는 석탄 더미로 변한 모닥불가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깜짝 놀라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놀랍게도 도난이 함께 앉아 있었다. 희끗해져 가는 수염과 상냥한 눈, 그 흥터와 눈가의 주름.

그녀의 마음에 기쁨이 차올랐다. 네이렐은 그의 이름을 외치며 손을 뻗었다. 도난은 물러나려는 듯 몸을 움찔했지만, 그녀의 손길을 거부하지는 않았다. 그의 손을 잡자, 충격적인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가로질렀다. 도난의 손가락은 마치 무덤의 흙처럼 차가웠다. 마치 죽어가는 나무의 뿌리처럼 검은 질병의 선이 비뚤비뚤하게 그의 팔을 타고 올랐다.

“이게 뭐예요?” 그녀가 거친 숨을 내쉬었다. “어디 아프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도난은 그렇게 말하며 손을 뺐다. 악의적이진 않아도, 부드럽지도 않은 행동이었다. 거기엔 희미하게나마 적대적 감정이 깃들어 있었고, 짧고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소매를 당겨 걷는 동작에도 마찬가지였다. 웃을 때는 예전의 그 익숙한 미소가 거기 그대로 있었지만, 왠지 장막 너머에서 엿보는 듯 이상했다. 그로 인해 그의 얼굴에는 늑대나 포식 동물 같은 빛이 떠올라 네이렐에게 아무런 위안도 주지 못했다.

“좋아 보이는구나, 친구!” 도난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이게 얼마만이지? 너무 오랜만인데.”

하지만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계속 늑대 같은 웃음을 띤 채로, 그들이 함께 여행했던 길과 함께 갔던 곳, 그리고 따로 또 같이 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렇게 전체 이야기를 듣고 있으려니, 네이렐은



웬지 묘하게 늙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정말 그녀가 그 모든 일을 했던 말인가? 그토록 많은 전투를 치렀던가?

그 길에 그토록 많은 친구들을 문었던가? 끔찍한 생각이었고, 네이렐은 그 생각의 무게에 짓눌렸다.

그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하듯, 도난의 얼굴이 슬픔에 잠겼다. 하지만 표정이 달라지고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 때에도 그의 미소만큼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밤을 바라보았다. “아무래도,” 그는 중얼거렸다. “우리의 시간이 끝난 것 같다, 안 그러냐, 네이렐?”

“끝났다고요...? 무슨 얘기죠?” 그녀는 물었다.

그는 묘하게 긴 손톱으로 수염을 문지른 후 다시 손톱을 바라봤다. 그 손톱은 반짝였고, 거기에선 피나 땀이 아니라 그의 팔에 있는 혈관과 같은 강렬한 어둠이 엮여있었다. 도난은 예상했다는 듯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 보고 마음이 흔들렸는지 모르지만, 전혀 내색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즐거워하는 분위기였다. 그녀도 확신할 수는 없었고, 그렇게 불확실한 상황 때문인지 밤은 더 춥고 어둡게만 느껴졌다.

“그래,” 그는 말했다. “모든 걸 던질 때가 됐다.” 그는 네이렐을 뚫어질 듯 바라봤다. “피곤하지 않느냐? 다른 누구도 아닌 너라면, 전쟁이 전사보다 더 오래 남는다는 걸 알고 있겠지.”

“난 전사가 아니에요.” 그녀는 대꾸했다. “학자라고요.”

도난은 씩씩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 여정을 끝내야지.”

그 말이 어깨에 얹힌 무게에 더해진 것처럼 네이렐의 온몸을 짓눌렀다. 마치 추위가 그녀를 부르며, 악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지금껏 고생한 그녀에게 영원한 잠을 보상으로 주려는 것만 같았다.

“난 너무 지쳤어요.” 그녀는 인정했다. “정말로 불가능한 길이었다고요.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이 길을 또 걷진 않을 거예요.”

“그래...?”

그녀는 그렇게 묻는 그의 눈에 어린 빛이 싫었다. 그래서 네이렐은 더 단호한 말투로 말했다. “물론 걸을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돌 단검처럼 날카롭고 단단했다.

도난은 고개를 끄덕였다. “악은 영원하다. 악은 견뎌내고, 우리는 필멸의 시간을 불태워 결코 전복시킬 수 없는 것을 정복하려 발버둥치지.”

“난...”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말을 잊지 못했다.

“네가 더 할 수 있는 건 없어.” 도난이 말했다. 이제 그 검은 줄들이 그의 양모

셔츠 옷깃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그 줄이 그의 목덜미를 타고 오르기 시작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친구여.” 도난은 지치고 슬픈 미소와 함께 입을 열었다. “이 길에서 네가 몇 번이나 성공했지? 그 끝없는 방랑의 끝에는 결국 텅 빈 무덤만 있지 않았느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난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네이렐, 잠깐 생각해 보렴. 그 명민한 머리로 집중해 보란 말이다. 그러면 이제 받아들일 때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녀는 놀란 숨을 들이쉬었다. “받아들이라고요? 미쳤어요?”

“아니.” 그는 날카로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자꾸 도망치려 하는 진실을 말해 주는 거다.”

“아니요.” 그녀는 딱 잘라 말했다. “그럴 순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모든 걸 잃게 될 거예요.”

“잃는다는 거지?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화려하게 죽고 말 뿐이야. 그게 용기냐 오만이냐?”

“싸워야 하는 싸움이에요.”

네이렐이 도난 안에서 보았던 어둠이 이제는 더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두 눈의 흰자위가 녹아내리고 홍채와 같은 색이 되어, 이제는 눈 전체가 밤의 새 날개와 같이 검었다. 입가에는 여전히 미소가 어려 있었지만, 거기에 기쁨은 없고 오직 잔혹함뿐이었다.

“네이렐... 진실을 보아라.” 그의 목소리는 이제 인간의 것이라기보다는 야생의 으르렁거림 같았다. “진실은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게 죽는다는 거다.”

이제 어둠이 그를 완전히 뒤덮었다. 그 어둠이 눈물처럼 그의 눈에서 흘러나와, 두꺼운 줄을 그리며 입가로 흘러 떨어졌다. 그는 악마의 목소리로 속삭였다. “메피스토를 꺾을 순 없다. 필멸자의 힘으로는, 네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네이렐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아니야!” 그녀는 거칠게 내뱉었다. “포기하지 않겠어.”

그 또한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난에 대한 마음은 애뜻했지만, 네이렐은 그 악의 가득한 미소를 뒤돌어 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마치 연기를 때리는 것만 같았다. 주먹은 그대로 그를 관통했고, 그녀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악몽 때문에 몸을 굴리다가 불타는 석탄 위로 올라선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네이렐은 버둥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담요에 붙은 불을 손으로 두드려 껐다.

드넓고 검은 밤이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네이렐과 함께 있는 건 바위 위에 앉은 까마귀뿐이었다. 그 새는 공허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네이렐은 거기 쫓그리고 앉아 혈떡이며 공포에 질렸다. 격노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 그녀는 다친 마음 속 모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절대로.”

밤의 새는 울부짖으려는 듯 부리를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 이제 보았느냐.

그 어떤 학자도, 여왕도, 전사도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소유하고 있지 않다. 지식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는 없다. 우리는 누구나 스스로 행한 일들에 쫓긴다. 모든 선택이 우리를 각자의 길로 내몰았다. 아무리 정의로움을 확신하더라도 모든 선택은 마치 칼처럼 자신을 벤다. 그런 상처를 통해 우리의 희망과 순수함은 빠져나간다. 상처가 날 때마다 우리는 육신과 피에 타락을 불러들인다.

하지만...

어떤 정신은 잘 타락하지 않는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

나는 나 자신의 꿈으로부터... 나의 악몽으로부터 깨어난다. 공포를 외면하려 눈을 돌리더라도, 나는 여전히 볼 수 있다. 여전히 알 수 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말이 흐른다.

“무언가 오고 있다.” 나는 말한다. 그리고 바깥의 숲에서 일천 마리 밤의 새가 공포로 울부짖는다. “무언가 끔찍한 것이... 오고 있다...”

저자 약력

JONATHAN MABERRY는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브랜 스토키 상 5회, 스크라이브 상 4회, 잉크팟 상 1회 수상자로, 50편이 넘는 장편 소설을 쓰고 30편이 넘는 작품집을 편집한 바 있다. 그는 또한 코믹북 작가, 시인, 최고 프로듀서, 글쓰기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의 *V-Wars*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제작되었고, *Rot & Ruin*은 알콘 엔터테인먼트에서 영화로 제작 중이며, *Joe Ledger* 스릴러는 *John Wick* 영화의 감독인 Chad Stahelski가 TV 시리즈로 제작 중이다. 그는 공포, SF, 판타지, 모험, 스릴러 등 다양한 작품을 저술하며, 국제 미디어 타이 인 작가 협회의 회장이자, 워워드 테일스 잡지의 편집자이기도 하다. Jonathanmaberry.com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